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불평등 구조분석

반 정 호*

I. 머리말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한국사회의 불평등의 특이성(신광영, 2004)이 논의될 만큼 소득은 물론 자산의 불평등을 가중시켰다.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위기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과 노동계급의 분화과정에서 소득분배의 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한 금융자산 축적의 불균등이 발생되었으며, 서울과 지방, 수도권과 비수도권 등의 지역간 부동산(아파트) 가격의 격차는 일부계층으로의 자산의 쏠림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과 부(富)는 개인의 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일종의 성적표이다. 소득이나 소비는 플로우(flow)변수인 반면, 부는 일정시점에 축적되어 있는 재산액으로 저장(stock)변수이다. 일정기간 소비흐름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삶을 즐길 수 있는 후생 및 만족의 정도는 소비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소득 및 부(자산)에서부터 나타나므로 한 가구의 부의 분배현황과 격차는 이들 가구의 경제적 지위를 평가하는 지표가 된다(노영훈·김현숙, 2005).

비교적 최근까지 분배에 관한 실증분석은 소득변수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온데 비해, 부의 분배의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관심을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자료(data)의 부재 등의 이유로 연구의 공백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사실이다(이정우·이성림, 2002). 이에 본고에서는 통계청(2006)의 「가계자산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자산(부)의 분배현황과 불평등의 구조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50세 이상의 중고령자 가구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미 기존연구들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노년기의 소득수준은 근로소득의 손실로 인한 상당폭의 소득 감소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중간 또는 저소득층 노인가구는 연금급여 등의 사회적 급여에

* 한국노동연구원 데이터센터 동향분석팀 책임연구원(jhban@kli.re.kr).

절대적으로 의존하게 된다. 이 때 사회내 사회보장체계가 성숙되고 또한 급여의 배분이 은퇴 이전의 근로소득의 분포보다 균등 또는 누진적으로 분배된다면 노년기의 소득불평등은 상당부분 개선될 것이다. 그러나 생애과정이론(life-course) 관점은 노년기의 불평등이 아동기 또는 성인기에 이미 고착화된 사적자원의 불평등한 분배를 유발할 것으로 예측한다(O'Rand, 1996; 김학주(2006)에서 재인용). 특히 우리나라는 공적연금제도의 노후 소득보장기능의 불충분성으로 인해 한국의 고령자의 경우 근로소득이나 사적이전소득이 여전히 중요한 소득원으로 기능하고 있으며,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노인빈곤율이 이를 반증하고 있다. 주지할 사실은 노년기의 근로소득은 매우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개인의 건강상태나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효용가치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노년으로 갈수록 소비활동의 유지 및 이를 통한 경제적 만족은 소득보다는 자산의 충분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많은 연구들도 노년기의 불평등의 문제는 노인가구의 근로생애 동안 축적한 자산(특히 금융자산) 또는 부채수준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지적한다.

이와 같은 인식에 기초하여 본고는 중고령자 가구의 자산의 충분성과 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전가구 및 중고령가구의 자산보유현황을 살펴보고 분배연구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불평등 지표를 통해 자산의 분배현황을 파악한다. 특히 중고령자 가구를 중심으로 자산의 불평등 요인분해를 통해 분배구조를 고찰하고자 한다.

II. 기존연구의 개관과 분석방법

1. 기존연구¹⁾

여기에서는 비교적 최근의 국내외 자산분포 및 분배와 관련된 연구들을 개관한다. 우선 PSID(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를 이용한 Caner and Wolff(2004)는 자산빈곤의 개념을 활용하여 소득기준 빈곤율과 자산빈곤율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경제성장 및 주식시장의 활황기에 소득기준 빈곤율은 하락하지만 자산빈곤율의 정체와 자산빈곤의 심도(severity)는 오히려 증가한다고 지적하였다. 일본의 가계 자산구

1) 이 부분은 2008년 1월 3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주최한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남상호(2008)의 연구를 많이 이용하였다.

성과 미국을 포함한 유럽국가들의 자산구성의 차이를 분석한 Iwaisako(2003)의 연구에서는 부동산 자산의 소유와 주식시장 참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있다. 국내연구로는 1998년 종료된 KHPS(한국가계패널조사)를 이용한 김진영·박창균(2001), 이정우·이성립(2002), 김진영(2002)의 연구들에서는 순자산 및 금융·부동산·부채 등과 같은 자산형태별 소유구조를 소득수준, 연령, 학력, 주택소유형태 등의 기준으로 불평등도를 추정하거나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의 전환과정, 자산구성의 패턴변화 등을 분석하고 있다. 유경원(2004)은 KHPS와 KLIPS(한국노동패널조사)를 이용하여 예비적 자산선택이론 관점에 기초하여 가계자산 구성의 특징을 분석하고 있으며, 김현숙(2005)은 국세청(공동주택부문의 기준시가 자료) 자료를 활용하여 가구소득과 주택자산의 소유분포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남상호(2007, 2008)는 KLIPS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분포의 불평등도를 추정하고 이를 요인별로 분해하였다. 최근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남상호(2008)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순자산의 지니계수가 0.731(2006년 기준)로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 10%(순자산 기준) 계층이 전체 자산의 절반을 넘는 54.3%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1999년 상위 10%의 순자산점유율 46.2%에 비해 8.1%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최근 7년 동안 자산의 쏠림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어 왔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고 지적하고 있다.

2. 자료와 분석방법

현재 자산의 분배상태와 불평등도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 연구자가 가용할 수 있는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KLIPS와 KLoSA(고령화연구패널조사), 그리고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 정도이다. 본고는 분석자료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다. KLIPS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패널조사로 2008년 현재 제9차 조사(원표본유지율 76.5%)가 마무리되어 소득과 자산의 정태적·동태적 변화를 파악하는데 용이한 자료이지만, 표본의 크기가 5,000가구로 통계청의 「가계자산조사」에 비해 작고, 원표본유지율을 고려하면 3,800가구 정도로 그 규모는 더욱 축소된다는 점이 고려되었다. 또한 KLoSA는 45세 이상 중고령자가 거주하는 6,171가구 및 10,254명의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소득과 자산을 개인단위와 가구단위로 구분하여 조사하는 방식(장지연, 2007)을 채택하고 있는 유용한 자료이지만 전체 인구의 자산분포를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고려되었다.

본고에서 활용하는 자료는 통계청이 2006년 실시한 「가계자산조사」이다. 이 조사는 전국의 표본가구(9,300가구)를 대상으로 2006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가구의 자산에 관한 모든 평균 금액을 조사한 자료로서 우리나라의 인구속성별 자산격차나 자산소유 분

포 등을 파악하는데 유용한 자료이다. 물론 조사에서 비표본오차가 존재하고, 자산에 대한 소극적인 응답경향으로 인해 자산이 과소 측정되는 경향이 존재하는 단점이 있다.

자산의 항목은 <표 1>에서 설명되고 있는 것처럼, 가구의 저축을 포함한 금융자산과 부동산평가액, 기타자산을 합한 총자산과 총자산에서 부채총액(부채액+임대보증금)을 뺀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본고에서는 가구의 규모효과를 통제하기 위해 가구별 자산을 가구원수의 제곱근으로 나누어주는 균등화 척도를 사용했으며, 가구기중치에 가구원수를 곱하는 방식의 개인가중치를 활용하였다. 이는 자산규모가 동일한 가구일지라도 가구원수의 차이에 의해 이들 가구의 후생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시되는 자산유형별 금액이나 분포는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수치와 다소 큰 차이가 나타난다.

또한 본고에서는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표로 가장 잘 알려진 지니계수와 분위별 자산 점유율 등의 지표를 통해 자산의 불평등 정도를 살펴보고, 대수편차평균(Mean Log Deviation: MLD)을 이용한 가구주의 인구학적 구성 및 고용상태별 자산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요인분해한다. 대수편차평균은 소득불평등 지표의 하나로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표 1> 가계자산조사의 주요자산의 항목과 설명

(단위: 천 명, %)

	구성내역
총자산	저축총액+부동산 시가평가액+기타자산평가액
순자산	총자산-부채총액
저축총액	저축액+전세보증금+월세보증금
저축액	적립식+목돈투자+기타(갯돈불입금+빌려준 돈)
전월세보증금	부동산을 임차하고 지불한 금액으로 향후 받아야 할 금액
부채총액	부채액+임대보증금
부채액	금융기관 대출+기타(개인/대부업체/직장대출+갯돈미불입금)
임대보증금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은 금액으로 향후 지불해야 할 금액
부동산평가액	주택+주택 이외
주택	현 거주주택+현 거주 이외 주택
주택 이외	토지+건물+분양 및 중도금 납입액
기타자산평가액	자동차+자동차 이외(골프, 콘도회원권, 귀금속, 골동품, 예술품, 고가내구재)

주: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과 관련된 평균 금액은 시가평가액 기준임.
 자료: 통계청(2007. 3), 「2006년 가계자산조사 결과」, 보도자료.

$$MLD = \frac{1}{n} \sum_i \ln \frac{\bar{Y}}{Y_i}$$

여기에서 \bar{Y} 은 모집단 전체의 항목별 평균 자산, Y_i 는 가구 i 의 자산, n 은 개인의 수이다. 만일 자산이 완전히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다면 모든 Y_i 가 \bar{Y} 와 같은 값을 가질 것이므로 그 값은 0이 되며, 반대로 불평등한 분배일수록 그 값은 커지게 된다. 이를 이용하여 가구주의 인구학적 특성 및 고용상태를 집단별로 구분하여 전체 인구의 불평등을 집단내 불평등도와 집단간 불평등도로 분해할 수 있다.

$$MLD^t = \sum_g w_g^t \cdot MLD_g^t + \sum_g w_g^t \cdot \ln \frac{\bar{Y}}{Y_i}$$

여기에서 w_g 는 요인특성에 따른 특정집단(g)의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구성 비중이며, MLD_g 는 한 집단 안에서의 불평등 정도를 의미한다. 위의 식에서 우변의 첫째 항은 집단내 불평등도(within-group component)를 나타내며, 둘째 항은 집단간 불평등도(between-group component)를 나타낸다. 아울러 불평등의 요인분해에서는 자산의 값이 0인 경우 로그값의 정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1로 대체하여 계산하였다.²⁾

III. 분석결과

1. 자산의 보유현황 I: 연간소득 기준

<표 2>에서는 전체 가구의 자산보유현황 및 연간소득 5분위별 자산보유현황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총자산은 17,182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금액은 금융자산(총저축액 3,498만 원), 부동산자산(13,202만 원), 기타자산(481만 원) 금액을 합한 것이다. 총자산에서 가구의 부채금액을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14,704만 원 정도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은 전반적으로 77% 정도의 부동산자산(주택자산은 총소득의 45.5% 수준임)과 20% 정도의 금융자산(총저축), 그리고 약간의 기

2) 불평등의 정태적·동태적 요인분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정진호 외(2002), 이병화·강신욱 외(2007), 남상호(2008)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타자산(2.8%)으로 구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총자산규모에서 14.4%는 부채액과 임대보증금 등의 총부채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가구주의 연령기준으로 50세 미만의 비노인가구와 50~64세 가구 및 65세 이상의 노인가구와 비교해 보면, 비노인가구의 경우 부동산자산은 총자산 대비 71.8%로 50~64세 중고령자 가구(80.7%)와 65세 이상 노인가

〈표 2〉 연간소득 5분위별 자산보유현황

(단위: 만 원, %, 배)

		전 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 배율
전체 가구	○총자산	17,182.4 (100.0)	10,024.8	10,431.0	13,750.4	17,187.6	34,511.7	3.4
	- 총저축	3,498.8 (20.4)	1,959.9	2,340.7	2,962.5	3,606.1	6,623.4	3.4
	- 부동산자산	13,202.1 (76.8)	7,891.5	7,819.1	10,408.8	13,066.0	26,820.2	3.4
	▪주택자산	7,818.8 (45.5)	4,280.9	4,903.0	5,992.5	8,820.0	15,093.3	3.5
	- 기타자산	481.5 (2.8)	173.4	271.2	379.1	515.6	1,068.1	6.2
	○총부채	2,478.1 (14.4)	1,268.9	1,546.6	2,159.6	2,811.1	4,603.2	3.6
	○순자산	14,704.3 (85.6)	8,756.0	8,884.4	11,590.7	14,376.5	29,908.5	3.4
비노인 가구 (50세 미만)	○총자산	13,704.5 (100.0)	6,869.1	8,994.9	10,494.7	15,098.1	27,032.4	3.9
	- 총저축	3,382.1 (24.7)	1,618.8	2,471.0	2,792.5	3,697.2	6,323.0	3.9
	- 부동산자산	9,843.4 (71.8)	5,047.9	6,219.3	7,324.6	10,848.1	19,752.9	3.9
	▪주택자산	6,474.7 (47.2)	2,886.3	4,296.2	4,966.5	7,477.5	12,731.3	4.4
	- 기타자산	479.0 (3.5)	202.4	304.6	377.5	552.9	956.4	4.7
	○총부채	2,413.7 (17.6)	1,239.3	1,594.2	1,995.9	2,791.5	4,442.7	3.6
	○순자산	11,290.8 (82.4)	5,629.9	7,400.7	8,498.8	12,306.6	22,589.7	4.0
중고령자 가구 (50~64세)	○총자산	23,304.6 (100.0)	14,653.8	13,541.3	18,240.4	22,243.9	47,795.2	3.3
	- 총저축	3,927.2 (16.9)	2,789.9	2,665.7	3,024.6	3,822.1	7,326.4	2.6
	- 부동산자산	18,807.6 (80.7)	11,619.8	10,592.8	14,833.1	17,804.4	39,148.9	3.4
	▪주택자산	10,275.7 (44.1)	5,719.4	6,335.0	8,813.8	11,188.3	19,298.6	3.4
	- 기타자산	569.8 (2.4)	244.1	282.8	382.7	617.4	1,320.0	5.4
	○총부채	2,846.0 (12.2)	1,833.9	1,764.9	2,630.3	2,941.8	5,054.2	2.8
	○순자산	20,458.6 (87.8)	12,819.9	11,776.4	15,610.1	19,302.1	42,741.0	3.3
노인 가구 (65세 이상)	○총자산	23,032.4 (100.0)	8,055.7	13,501.1	17,553.0	25,046.5	50,956.8	6.3
	- 총저축	3,124.0 (13.6)	1,479.1	2,215.3	2,421.9	3,211.5	6,287.1	4.3
	- 부동산자산	19,637.0 (85.3)	6,525.9	11,202.4	14,988.9	21,586.0	43,838.8	6.7
	▪주택자산	9,846.7 (42.8)	3,703.0	5,279.7	8,214.3	10,465.3	21,548.0	5.8
	- 기타자산	271.4 (1.2)	50.6	83.4	142.2	249.0	830.9	16.4
	○총부채	1,935.5 (8.4)	583.6	953.7	1,497.2	1,965.8	4,671.8	8.0
	○순자산	21,096.9 (91.6)	7,472.0	12,547.5	16,055.8	23,080.7	46,285.0	6.2

주: ()안은 총소득 대비 비중임.
자료: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원자료.

구(85.3%)에 비해 각각 8.9%p와 13.5%p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반대로 금융자산의 경우는 비노인가구는 총자산의 25% 정도가 저축과 전월세보증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 반면, 64세 미만 중고령자 가구와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는 각각 17%와 14%선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총소득 대비 금융소득의 비중이 낮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노령화에 따른 근로소득의 감소 등 경상소득의 절대적인 감소가 직접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일 것이다.

다음은 가구의 연간소득(연간 경상소득+연간 비경상소득)³⁾ 5분위별로 가구자산의 규모를 분석해 보면, 전체 가구의 총자산과 총저축, 부동산자산의 경우, 연간소득 5분위 계층(상위 20% 계층)이 1분위 계층(하위 20% 계층)보다 약 3.4배 정도 많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며, 기타자산의 경우는 6.2배, 부채총액은 3.6배, 순자산의 경우는 3.4배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비노인가구와 노인가구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비노인가구의 경우 총자산의 5분위배율은 3.9배, 65세 미만 중고령자 가구는 3.3배로 그 격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는 6.3배로 다시 5분위배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금융자산 및 부동산자산 등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기타자산의 경우는 비노인가구(4.7배)와 65세 미만 중고령자 가구(5.4배)에서보다 65세 이상 노인가구(16.4배)에서 매우 큰 자산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순자산의 경우는 비노인가구의 5분위배율이 4.0배에서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는 6.2배로 자산격차가 확대되고 있다.

2. 자산의 보유현황 II: 순자산 기준

앞서 우리나라 가구의 연간소득 기준 자산보유현황과 분배상태를 살펴보았다. 연간소득 기준 5분위배율은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기타자산 16.4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자산유형에서 최소 2.6배에서 최대 8.0배까지의 자산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처럼 연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자산5분위배율은 가구주의 근로·사업소득 및 재산소득을 포함한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현재의 소득수준에 따른 자산불평등을 파악할 것이다. 그러나 노인가구가 다수 포함된 자료에서 소득수준별 자산불평등을 파악할 때,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동기 및 근로활동에 의한 소득의 규모가 매우 차별적이라는 점, 그리고 이미 형성된 자산에 의해 발생하는 재산소득의 금액에 따라 경상소득의 규모가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최소한 노인가구의 경우 현재소득이

3) 연간소득은 연간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을 합한 금액이다. 연간경상소득은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으로 구성되며, 연간비경상소득은 경조소득, 퇴직금 및 연금일시금, 기타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된다.

란 변동성이 심하고 매우 이질적인 요소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자산불평등도를 파악하는 좋은 측도가 되지 못한다. 따라서 가구의 자산에 보다 초점을 두어 자산분배와 그 격차를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여기에서는 자산의 보유정도를 구분하는 변수로 가구의 총자산에서 부채금액을 고려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각 자산유형의 분배현황과 그 격차를 분석하고자 한다.

<표 3>은 순자산 5분위별 자산유형별 분배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전체 가구의 총자산은 하위 20%의 계층이 1,764만 원으로 상위 20% 계층의 54,344만 원과 비교하면 30.8배 정도의 격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격차는 비노인가구 및 65세 미만 노인가구에서는 5분위배율이 25배 정도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65세

<표 3> 순자산 5분위별 자산보유현황

(단위: 만 원, 배)

		전 체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5분위배율
총자산	전 체	17,182.4	1,764.3	5,017.6	8,973.9	15,797.1	54,344.5	30.8
	비노인	13,704.5	1,662.4	4,374.8	7,599.5	13,057.4	41,817.0	25.2
	중고령자(50~64세)	23,304.6	2,822.4	7,382.6	12,667.7	21,297.5	72,173.1	25.6
	노인(65세 이상)	23,032.4	1,070.3	4,947.3	10,600.6	20,238.1	78,148.5	73.0
금융자산	전 체	3,498.8	939.6	1,887.4	2,629.5	3,883.8	8,150.7	8.7
	비노인	3,382.1	916.9	1,939.2	2,583.6	3,705.1	7,763.5	8.5
	중고령자(50~64세)	3,927.2	1,052.8	1,847.7	3,028.2	4,594.3	9,094.8	8.6
	노인(65세 이상)	3,124.0	586.1	1,114.4	1,927.6	3,250.8	8,724.9	14.9
부동산자산	전 체	13,202.1	698.9	2,862.0	5,976.9	11,436.8	45,024.2	64.4
	비노인	9,843.4	608.5	2,157.9	4,626.0	8,853.3	32,962.5	54.2
	중고령자(50~64세)	18,807.6	1,632.2	5,278.4	9,286.0	16,170.8	61,512.7	37.7
	노인(65세 이상)	19,637.0	452.4	3,732.3	8,525.6	16,751.9	68,583.4	151.6
주택자산	전 체	7,818.8	581.6	2,492.5	4,953.8	8,292.1	22,765.9	39.1
	비노인	6,474.7	489.3	1,951.9	3,872.6	6,666.8	19,387.0	39.6
	중고령자(50~64세)	10,275.7	1,426.2	4,558.5	7,178.5	10,877.7	27,275.0	19.1
	노인(65세 이상)	9,846.7	349.3	2,840.9	6,355.3	10,076.1	29,551.2	84.6
순자산	전 체	14,704.3	621.4	3,679.5	7,114.1	13,238.0	48,855.5	78.6
	비노인	11,290.8	428.9	3,107.9	5,886.4	10,600.7	36,420.2	84.9
	중고령자(50~64세)	20,458.6	1,358.2	5,694.3	10,398.2	18,573.0	66,101.7	48.7
	노인(65세 이상)	21,096.9	765.1	4,243.9	9,117.1	18,337.8	72,874.8	95.3

자료: 통계청, 「가계자산조사」 원자료.

이상 노인가구에서는 73배까지 그 격차가 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금융자산의 경우에도 전체 가구를 비롯한 비노인가구 및 65세 미만 노인가구의 자산 5분위배율은 8.5배 수준에 머무르지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는 그 격차가 14.9배까지 확대된다. 일반적으로 노년기 근로소득의 감소분은 다른 자산유형보다 비교적 처분가능성이 높은 금융자산에 의한 충당이 가능하기 때문에 금융자산의 안정적인 확보는 노년기 소득보장과 소비유지를 위해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감안할 때, 현재 우리나라 노인가구(특히 노동시장 진입을 통한 소득확보가 어려운 고령계층)에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자산의 분배격차는 노년기 소득보장을 위한 자산의 불충분성을 시사해주는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주택 및 주택 이외의 부동산자산의 5분위배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에서 64.4배 정도의 격차가 나타나고, 비노인가구에서는 54.2배, 64세 미만 중고령자 가구에서 37.7배로 다소 그 격차가 감소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에는 순자산 기준 상위 20% 계층과 하위 20% 계층의 격차가 무려 151.6배까지 확대된다. 주택자산의 경우에도 비노인가구에서는 39.1배의 5분위배율이 나타나고, 65세 미만 중고령자 가구에서는 19.1배까지 감소하지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는 84.6배로 자산격차가 크게 확대된다. 순자산 하위 20%의 1분위 평균 주택자산은 349만 원에 불과한 반면, 상위 20%의 5분위계층에서는 평균 2억 9,551만 원의 주택관련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최근 급등한 주택 및 부동산가격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에서 주거불안 혹은 주거빈곤(housing poverty)을 경험하는 노인가가 수 상당수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정책을 표적화(targeting)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한 가구의 부채규모를 고려한 순자산의 5분위배율의 경우에는 다른 자산유형에 비해 전체 가구(78.6배)와 비노인가구(84.9배)에서 격차가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순자산 5분위배율이 95.3배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3. 자산분배 불평등

앞서 연간소득과 순자산을 기준으로 5분위별 평균자산과 자산 5분위배율을 통해 자산의 보유현황과 분배격차를 파악해 보았다. 여기에서는 자산 지니계수와 점유율을 통해 자산의 분배불평등 정도를 분석한다. 총자산 10분위 점유율을 살펴보면, 전체 가구와 비노인 및 65세 미만 중고령자 가구의 1~3분위 자산점유율이 각각 0.4%대, 1.5%대, 2.5%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65세 이상 노인가구는 0.1%, 0.7%, 1.5%대의 낮은 자산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어 다른 연령대와 대조적이다. 또한 10분위의 최상위 자산보유층에서의 자산점유율은 비노인가구(44.9%), 65세 미만 중고령자 가구(46.0%)에 비해 65세 이

상 노인가구의 자산점유율이 51.6%로 다른 연령대와 역전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로 인해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총자산 기준 지니계수는 0.654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아져 이들 계층의 총자산 불평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같은 연령계층별 자산빈곤층과 자산부유층의 점유율 역전현상은 여타 자산유형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되며, 이에 따른 자산 지니계수 역시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 비노인가구와 65세 이상 노인가구를 비교해 보면, 금융자산 지니계수는 각각 0.567과 0.690, 주택자산 지니계수는 0.672와 0.687, 순자산 지니계수는 0.619와 0.662로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자산의 불평등 정도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 10분위 자산점유율과 지니계수

(단위: %)

		자산점유율										지니계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총자산	전 체	0.37	1.32	2.30	3.32	4.44	5.84	7.84	10.77	16.46	47.33	0.604
	비노인	0.42	1.45	2.53	3.62	4.75	6.19	8.18	11.15	16.79	44.91	0.583
	중고령자(50~64세)	0.51	1.56	2.58	3.59	4.70	6.06	7.94	10.67	16.44	45.95	0.585
	노인(65세 이상)	0.14	0.72	1.56	2.62	3.71	5.13	7.33	10.41	16.77	51.62	0.654
금융자산	전 체	0.23	1.05	2.16	3.44	4.85	6.59	8.88	12.13	17.50	43.19	0.586
	비노인	0.33	1.29	2.45	3.74	5.14	6.76	9.08	12.29	17.22	41.70	0.567
	중고령자(50~64세)	0.22	0.98	2.08	3.38	4.84	6.64	8.94	12.09	18.42	42.41	0.585
	노인(65세 이상)	0.04	0.28	0.89	1.80	3.24	4.70	7.36	11.08	17.02	53.60	0.690
부동산자산	전 체	0.00	0.00	0.80	2.42	3.77	5.25	7.33	10.46	16.89	53.09	0.682
	비노인	0.00	0.00	0.04	2.24	3.72	5.62	7.75	11.10	17.59	51.93	0.683
	중고령자(50~64세)	0.00	0.74	2.07	3.04	4.09	5.44	7.31	10.50	16.36	50.44	0.639
	노인(65세 이상)	0.00	0.10	1.25	2.35	3.39	4.81	6.73	10.04	16.62	54.73	0.687
주택자산	전 체	0.00	0.00	0.20	2.63	4.43	6.08	7.54	12.35	17.25	49.53	0.660
	비노인	0.00	0.00	0.00	1.31	4.26	6.28	8.24	12.53	18.32	49.05	0.672
	중고령자(50~64세)	0.00	0.45	2.04	3.77	4.40	6.60	8.54	11.19	17.16	45.85	0.607
	노인(65세 이상)	0.00	0.01	1.02	2.06	3.40	5.34	7.19	9.84	16.60	54.53	0.687
순자산	전 체	-0.19	1.03	2.01	2.99	4.15	5.53	7.47	10.56	16.57	49.88	0.637
	비노인	-0.03	1.09	2.20	3.30	4.47	5.95	7.87	10.93	16.81	47.71	0.619
	중고령자(50~64세)	0.01	1.32	2.28	3.29	4.40	5.77	7.63	10.50	16.67	48.15	0.615
	노인(65세 이상)	0.04	0.68	1.51	2.50	3.66	5.02	7.12	10.22	17.01	52.23	0.662

아울러 자산의 상위 30%(8~10분위)의 자산부유층은 전체 가구 총자산의 75%와 순자산의 77%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반면, 하위 30%(1~3분위)의 자산빈곤층은 총자산의 4.0%, 순자산의 2.9% 점유에 불과해 자산의 쏠림현상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65세 이상 노인가구주의 경우는 상위 30%의 자산부유층의 총자산 점유율이 78.8% 인데 비해 하위 30%의 자산빈곤층은 2.4% 점유에 불과하고 금융소득의 경우도 자산부유층의 점유율이 81.7%, 자산빈곤층의 점유율은 1.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비노인가구와 65세 미만 중고령자 가구에 비해 자산의 쏠림현상이 보다 심화되고 있다.

<부표 1>과 <부표 2>에서는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활동상태별 자산 지니계수를 보여주고 있다. 전반적으로 고령여성가구주 가구의 자산 지니계수가 높게 분석되고 있으며,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에서 자산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교육수준에 따른 자산의 불평등은 대체로 저학력가구주 가구에서 높게 분석되고, 이를 연령별로 구분한 분석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또한 가구주의 활동상태별 자산불평등 정도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무직자와 노동시장 은퇴자, 비경제활동인구 등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가구의 불평등이 심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를 연령별로 구분해 보면, 50세 미만의 비노인가구의 경우, 기타가구와 고용주 가구에서 자산불평등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노인가구와는 달리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상대적으로 기타가구와 고용주 가구의 비중이 낮은 것과 연관된다. 반대로 65세 미만 및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경우는 금융자산을 제외한 나머지 자산유형에서의 불평등이 임금근로자와 기타가구에서 높고 고용주와 자영자의 자산불평등은 상대적으로 낮은 대조적인 양상을 보인다. 50세 이상 65세 미만 중고령자의 47%,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의 15% 가량이 임금근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구의 지니계수는 무직자 및 은퇴자를 포함하고 있는 기타가구 다음으로 높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가구주의 활동상태별 총자산의 규모를 살펴보면, 임금근로자의 총자산은 나머지 가구유형(고용주자영자기타가구)에 비해 가장 작은 20,466만 원으로 나타난다. 고용주와 자영자의 경우는 각각 112,716만 원과 23,094만 원으로 분석되며, 기타가구의 총자산 역시 임금근로자보다 많은 20,594만 원으로 분석된다(부표 2 참조). 이상의 내용을 통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근로행위가 근로생애동안 축적한 자산의 불충분성에 기인한 생계유지형 근로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4. 자산불평등의 요인분해

여기에서는 대수편차평균(MLD)을 이용한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및 고용상태(활동상태)별 자산불평등의 요인분해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에서 사용한 자산기준은 총

자산에서 가구의 부채규모를 고려한 순자산이다. 우선 MLD에 의한 전체 가구의 가구주 성별 불평등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가구주 가구의 자산불평등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집단내 불평등도가 전체 자산불평등의 거의 대부분인 9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집단간 불평등도는 2.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전체 가구의 자산불평등에 대한 여성가구의 영향력이 29.4%로 비교적 높은 편이다.

MLD를 이용한 연령별 자산불평등도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불평등이 가장 높고, 50세 이상 65세 미만 노인가구에서도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전체 자산불평등의 연령별

<표 5> 전체 가구 가구주의 연령·학력·활동상태별 자산불평등 요인분해(정태적 요인분해)

		평균소득 (만원)	구성비 (%)	집단별 불평등 (MLD)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율			상대적 기여도 (%)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합 계	
성 별	남 성	15,763.9	82.6	0.74158	0.61248	-0.05747	0.55501	70.6
	여 성	9,677.6	17.4	0.90974	0.15838	0.07283	0.23120	29.4
	전 체	14,704.3	100.0	0.78354	0.77085 (98.0)	0.01536 (2.0)	0.78621	100.0
연령별	20대	3,552.7	3.8	0.61596	0.02338	0.05391	0.07729	9.8
	30대	8,130.3	23.7	0.57953	0.13708	0.14016	0.27724	35.2
	40대	14,180.8	36.0	0.68417	0.24651	0.01306	0.25958	33.0
	50~64세	20,458.6	26.3	0.72343	0.18996	-0.08672	0.10324	13.1
	65세 이상	21,096.9	10.3	1.03795	0.10651	-0.03704	0.06947	8.8
	전 체	14,704.3	100.0	0.78354	0.70344 (89.4)	0.08337 (10.6)	0.78681	100.0
학력별	중졸 이하	11,637.6	26.6	0.76653	0.20382	0.06219	0.26601	33.8
	고 졸	11,398.6	40.6	0.73915	0.30015	0.10341	0.40356	51.2
	초대졸	12,934.7	8.4	0.68131	0.05717	0.01076	0.06794	8.6
	대학 이상	24,152.4	24.4	0.70178	0.17131	-0.12114	0.05017	6.4
	전 체	14,704.3	100.0	0.78354	0.73245 (93.0)	0.05523 (7.0)	0.78768	100.0
활 동 상태별	근로자 가구	11,266.1	54.4	0.67996	0.37015	0.14499	0.51515	65.5
	고용주 가구	29,632.5	8.8	0.78233	0.06852	-0.06137	0.00715	0.9
	자영자 가구	15,934.0	23.9	0.66630	0.15906	-0.01917	0.13989	17.8
	기타가구	16,797.9	12.9	1.09335	0.14140	-0.01722	0.12418	15.8
	전 체	14,704.3	100.0	0.78354	0.73913 (94.0)	0.04724 (6.0)	0.78636	100.0

집단내 불평등이 약 89% 정도를 설명하고, 나머지 10.6%는 집단간 불평등에 의해 설명되고 있으며, 2030대 가구에서는 비교적 집단간 불평등이 높은 반면, 40대 가구 및 노인가구에서는 집단내 불평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학력별 자산불평등을 요인 분해하면 중졸 이하의 저학력 가구주의 불평등(0.76653)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고졸과 초대졸 학력자 가구에서 불평등도가 다소 낮아지다가 대학 이상의 고학력자 가구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학력별로는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자산불평등의 93.0%를 설명하고 있으며, 집단간 불평등은 약 7.0%를 설명하고 있다. 전체 자산불평등에 대한 학력별 자산불평등의 상대적 기여도는 고졸학력에서 가장 높고, 중졸 이하, 초대졸, 대학 이상의 순으로 나타난다. 활동상태별로는 무직자 및 은퇴자 등이 포함되어 있는 기타가구에서 가장 높은 불평등도를 보여주고 있고,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자산불평등의 94.0% 정도를 설명하고 있다. 가구주의 활동상태별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살펴보면, 근로자 가구, 자영자 가구, 기타가구, 고용주 가구 순으로 높게 나타난다.

<표 6>은 전체 가구를 비노인가구와 50~64세 노인가구,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가구로 각각 구분하여 이들의 상·학력·활동상태별 자산불평등을 요인분해한 결과이다. 먼저 비노인가구의 경우, 여성의 자산의 불평등도(0.78180)가 남성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성별 집단내 불평등이 전체 자산불평등의 98.6%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성별 자산불평등이 전체 불평등의 상대적 기여도는 여성이 23.9%로 후술하게 될 노인가구의 여성 가구주의 기여도보다 낮은 수치를 보여준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가구주의 자산불평등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활동상태별로는 기타가구, 고용주 가구, 근로자 가구 순으로 불평등이 높게 분석된다. 또한 전체 불평등에 대한 활동상태별 상대적 기여도는 근로자 가구(71.4%)에서 가장 높고 자영자(18.7%), 기타가구(9.9%) 순으로 높다.

다음으로 50~64세 중고령자 가구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가구에서 다소 높은 자산불평등도(0.69232)를 기록하고 있으며, 성별 자산불평등이 전체 자산의 불평등의 상대적 기여도는 여성이 35.1%로 비노인가구에 비해 높아진다. 학력별로는 초대졸 학력자의 불평등이 가장 높고, 고졸, 중졸 이하, 대학 이상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활동상태별로는 기타, 근로자, 자영자, 고용주 가구 순으로 높다. 특히 이 연령대에서는 전체 자산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가 근로자 가구(61.4%)로 비노인가구에 비해 감소하는 대신 자영자(25.5%)와 기타가구(14.4%)의 불평등에 대한 기여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는 여성의 자산불평등도가 1.59695로 남성(0.77619)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자산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도 56.9%로 비노인가구(23.9%)와 65세 미만 중고령자 가구(35.1%)에 비해 크게 증가해 여

성 노인가구주 가구의 자산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사실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학력별로는 중졸 이하의 저학력 노인가구주의 자산불평등도(0.94108)가 가장 높은 동시에 전체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95.6%)도 역시 가장 높다. 활동상태별로는 비노인가구와 65세 미만 중고령자 가구에서와 유사하게 기타가구의 자산불평등도가 1.28748로 가장 높고, 근로자 가구, 고용주, 자영자 순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기타가구의 전체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69%까지 증가하고, 반대로 근로자 가구의 기여도는 16.7% 수준까지 떨어진다. 하지만 여전히 근로자 가구의 전체 불평등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는 기타가구 다음으로 높다.

<표 6> 연령집단별 가구주의 성·학력·활동상태별 자산불평등 요인분해 : 정태적 요인분해

			평균소득 (만원)	구성비 (%)	집단별 불평등 (MLD)	전체 불평등에 대한 기여율			기여도 (%)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합 계	
비 노 인 가 구	성 별	남 성	11,887.0	85.4	0.67870	0.57951	-0.04393	0.53558	76.1
		여 성	7,807.9	14.6	0.78180	0.11426	0.05391	0.16817	23.9
		전 체	11,290.8	100.0	0.70105	0.69377 (98.6)	0.00997 (1.4)	0.70374	100.0
	학 력	중졸 이하	6,474.2	10.5	0.73319	0.07679	0.05825	0.13504	19.0
		고 졸	7,627.2	46.2	0.60320	0.27887	0.18135	0.46022	64.8
		초대졸	10,136.8	11.9	0.55395	0.06591	0.01283	0.07874	11.1
		대학 이상	18,729.7	31.4	0.62304	0.19561	-0.15890	0.03671	5.2
		전 체	11,290.8	100.0	0.70105	0.61718 (86.8)	0.09353 (13.2)	0.71071	100.0
		활 동 상 태	근로자 가구	9,641.0	64.0	0.62824	0.40209	0.10110	0.50319
	고용주 가구		24,009.1	10.7	0.75559	0.08091	-0.08079	0.00012	0.0
	자영자 가구		10,177.8	18.9	0.59259	0.11215	0.01964	0.13180	18.7
	기타가구		9,791.3	6.4	0.94982	0.06044	0.00907	0.06950	9.9
	전 체		11,290.8	100.0	0.70105	0.65559 (93.0)	0.04902 (7.0)	0.70461	100.0

<표 6>의 계속

			평균소득 (만원)	구성비 (%)	집단별 불평등 (MLD)	기여율			기여도 (%)	
						집단내 불평등	집단간 불평등	합 계		
중고령자 가구 (50 ~ 64세)	성별	남 성	22,716.3	80.0	0.69232	0.55412	-0.08378	0.47034	64.9	
		여 성	11,406.5	20.0	0.69084	0.13791	0.11662	0.25453	35.1	
		전 체	20,458.6	100.0	0.72343	0.69203 (95.5)	0.03284 (4.5)	0.72487	100.0	
	학력	중졸 이하	13,446.2	48.3	0.61193	0.29563	0.20277	0.49840	68.8	
		고 졸	20,370.4	36.4	0.68015	0.24750	0.00157	0.24907	34.4	
		초대졸	38,781.2	2.6	0.78817	0.02066	-0.01676	0.00390	0.5	
		대학 이상	43,644.7	12.7	0.5453	0.06914	-0.09606	-0.02693	-3.7	
		전 체	20,458.6	100.0	0.72343	0.63293 (87.4)	0.09152 (12.6)	0.72444	100.0	
	활동상태	근로자 가구	15,730.2	46.8	0.69060	0.32320	0.12300	0.44621	61.4	
		고용주 가구	43,376.0	6.8	0.60043	0.04067	-0.05090	-0.01023	-1.4	
		자영자 가구	21,781.5	32.2	0.63766	0.20552	-0.02019	0.18532	25.5	
		기타가구	22,109.9	14.2	0.81644	0.11591	-0.01102	0.10489	14.4	
		전 체	20,458.6	100.0	0.72343	0.68530 (94.4)	0.04089 (5.6)	0.72619	100.0	
	노인가구 (65세 이상)	성별	남 성	24,449.4	71.8	0.77619	0.55762	-0.10595	0.45167	43.1
			여 성	12,544.4	28.2	1.59695	0.44970	0.14639	0.59609	56.9
전 체			21,096.9	100.0	1.03795	1.00732 (96.1)	0.04044 (3.9)	1.04776	100.0	
학력		중졸 이하	13,206.9	70.7	0.94108	0.66540	0.33118	0.99658	95.6	
		고 졸	26,039.9	16.6	0.69543	0.11553	-0.03497	0.08056	7.7	
		초대졸	35,152.3	1.5	0.44925	0.00659	-0.00749	-0.00090	-0.1	
		대학 이상	61,681.8	11.2	0.77137	0.08650	-0.12031	-0.03381	-3.2	
		전 체	21,096.9	100.0	1.03795	0.87402 (83.8)	0.16840 (16.2)	1.04242	100.0	
활동상태		근로자 가구	18,613.2	14.8	1.04844	0.15525	0.01855	0.17380	16.7	
		고용주 가구	105,562.5	1.8	0.76641	0.01356	-0.02849	-0.01493	-1.4	
		자영자 가구	21,728.9	33.1	0.53309	0.17636	-0.00976	0.16659	16.0	
		기타가구	18,443.3	50.3	1.28748	0.64812	0.06767	0.71579	68.7	
		전 체	21,096.9	100.0	1.03795	0.99329 (95.4)	0.04796 (4.6)	1.04126	100.0	

IV. 맺음말

본고는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근로생애동안 축적한 자산은 과연 노후의 소득보장이나 소비활동을 유지시킬 수 있을 만큼 충분하며 균등하게 분배되어 있는가에 관심을 두고, 최근 통계청에서 발표한 「가계자산조사」 자료를 활용해 자산의 보유와 분배현황을 분석했다.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은 약 77% 정도의 부동산자산(주택과 주택 이외)과 20% 정도의 금융자산(저축과 전월세보증금), 그리고 3% 내외의 기타자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고령층으로 갈수록 부동산자산의 비중이 증가하고 상대적으로 금융자산과 기타자산은 감소한다. 자산분배의 불평등을 연간소득 기준과 순자산 기준을 모두 적용해 분석해 본 결과, 연간소득 기준 자산 5분위배율은 전체 자산유형을 통틀어 최소 2.6배(65세 미만 중고령자 가구, 금융자산)에서 최대 16.2배(65세 이상 노인가구, 주택자산)까지의 자산격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순자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 격차가 최소 8.5배(비노인가구, 금융자산)에서 최대 151.6배(65세 이상 노인가구, 부동산자산)까지 확대되고 있어 자산분배 불평등의 심각성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이와 같은 자산의 불균등한 분배는 65세 이상 노인가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주택을 비롯한 부동산자산의 분배격차가 매우 심각해 관련 정책의 개선·보완을 통한 격차완화가 요구된다.

다양한 불평등 지표와 대수편차평균(MLD)을 이용한 자산불평등의 구조를 분석한 결과 대체로 여성·고령·저학력 가구주의 불평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들 중의 다수는 일부 항목의 자산이 아예 존재하지 않거나 빈약한 계층일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고령층으로 갈수록 실업자 및 무직·노동시장 은퇴자 등의 비경제활동인구를 대거 포함하고 있는 기타가구의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임금근로자로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가구주 가구의 자산불평등도도 상대적으로 높고, 다른 집단에 비해 총자산의 규모도 가장 작았다. 이는 우리나라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많은 부분 근로생애동안 축적한 자산의 불충분성에 기인한 생계유지형 근로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짐작을 하게 하며, 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배와 구조의 변화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와 이에 기반한 풍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 **KL**

<참고문헌>

- 김진영(2002), 「대우패널 자료를 통해 본 1990년대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 『재정논집』 17(1), pp.47~74.
- 김진영·박창균(2001), 『가계의 자산구성 변화와 조세정책에 대한 함의』, 한국조세연구원.
- 김학주(2006), 「노인가구 대 비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사회보장연구』 22(4), 한국사회보장학회, pp.141~161.
- 김현숙(2005), 「우리나라 공동주택 거주가구의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 비교」, 『재정포럼』, 한국조세연구원.
- 남상호(2007), 「우리나라 가구의 자산분포 현황과 시사점」,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자료집』, 한국경제학회.
- _____ (2008), 「가계자산 분배와 불평등도의 요인별 분해: 노동패널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노동패널학술대회 자료집』, 한국노동연구원.
- 노영훈·김현숙(2005), 『소득과 주택자산 소유분포에 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 신광영(2004), 『한국의 계급과 불평등』, 을유문화사.
- 유경원(2004), 「우리나라 가계의 예비적 자산선택행태에 관한 연구」, 『경제분석』 10(3),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pp.112~143.
- 이병화·강신욱 외(2007), 「최근 소득분배 및 공적이전·조세의 재분배 효과추이 분석」,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 이정우·이성림(2002), 「한국 가계자산 불평등의 최근 추이」, 『노동정책연구』 1(2), pp. 39~51.
- 장지연(2007), 「중고령자 가구의 소득수준과 소득구성의 특징」, 『노동리뷰』 12월호, 한국노동연구원, pp.3~13.
- 정진호·황덕순·이병화·최강식(200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 Caner, A., & Edward N. Wolff(2004), “Asset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1984-99: Evidence from the 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50(4), pp. 493~518.
- Iwaisako, Tokuo(2003), “Household Portfolio in Japan”, NBER Working p.9647.
- O’Rand, A, M.(1996), “The Precious and the Precocious”, *The Gerontologist* 36(2), pp. 230~238.

<부표 1> 가구주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별 자산불평등도: 지니계수

(단위: %)

		비 중	금융자산	저축자산	부동산자산	주택자산	순자산	
연령	전 체	100.0	0.604	0.586	0.682	0.660	0.637	
	비노인	63.48	0.583	0.567	0.683	0.672	0.619	
	중고령자(50~64세)	26.26	0.585	0.585	0.639	0.607	0.615	
	노인(65세 이상)	10.26	0.654	0.690	0.687	0.687	0.662	
성	전 체	남 성	82.59	0.594	0.573	0.671	0.650	0.627
		여 성	17.41	0.639	0.647	0.726	0.711	0.671
	비노인	남 성	85.39	0.574	0.556	0.673	0.661	0.610
		여 성	14.61	0.623	0.626	0.736	0.737	0.665
	중고령자(50~64세)	남 성	80.04	0.582	0.576	0.633	0.607	0.609
		여 성	19.96	0.545	0.613	0.610	0.594	0.583
	노인(65세 이상)	남 성	71.84	0.597	0.655	0.628	0.641	0.609
		여 성	28.16	0.784	0.763	0.828	0.801	0.784
배우자 유무	전 체	유배우자	85.42	0.589	0.577	0.664	0.642	0.622
		무배우자	14.58	0.676	0.626	0.780	0.767	0.710
	비노인	유배우자	86.98	0.571	0.562	0.667	0.654	0.607
		무배우자	13.02	0.636	0.576	0.791	0.796	0.690
	중고령자(50~64세)	유배우자	87.24	0.576	0.579	0.629	0.600	0.605
		무배우자	12.76	0.618	0.612	0.687	0.651	0.654
	노인(65세 이상)	유배우자	71.19	0.598	0.655	0.629	0.641	0.610
		무배우자	28.81	0.773	0.761	0.819	0.800	0.770
교육 수준	전 체	중졸 이하	26.59	0.583	0.601	0.645	0.604	0.614
		고 졸	40.61	0.596	0.548	0.695	0.660	0.638
		초대졸	8.39	0.576	0.504	0.690	0.637	0.616
		대학 이상	24.41	0.569	0.572	0.641	0.626	0.600
	비노인	중졸 이하	10.47	0.604	0.559	0.711	0.671	0.666
		고 졸	46.23	0.546	0.518	0.678	0.646	0.594
		초대졸	11.9	0.525	0.485	0.655	0.638	0.565
		대학 이상	31.4	0.541	0.564	0.625	0.624	0.573
	중고령자(50~64세)	중졸 이하	48.31	0.532	0.576	0.591	0.538	0.567
		고 졸	36.39	0.575	0.561	0.639	0.601	0.609
		초대졸	2.62	0.620	0.528	0.690	0.474	0.655
		대학 이상	12.68	0.512	0.537	0.552	0.546	0.537
	노인(65세 이상)	중졸 이하	70.71	0.615	0.656	0.656	0.642	0.625
		고 졸	16.61	0.571	0.635	0.613	0.611	0.586
		초대졸	1.47	0.456	0.422	0.498	0.526	0.445
		대학 이상	11.21	0.576	0.685	0.597	0.566	0.580

<부표 2> 가구주의 활동상태별 자산불평등도: 지니계수

(단위: %)

		비 중	총자산(금액)	Gini 계수				
				총자산	금융자산	부동산자산	주택자산	순자산
전 체	근로자	54.44	13,428.9	0.569	0.561	0.664	0.654	0.607
	고용주	8.76	34,759.6	0.598	0.598	0.659	0.637	0.626
	자영자	23.87	18,179.6	0.561	0.548	0.632	0.585	0.602
	기 타	12.93	19,238.4	0.679	0.691	0.730	0.710	0.694
비노인	근로자	64.0	11,739.8	0.553	0.547	0.666	0.667	0.591
	고용주	10.71	28,931.9	0.599	0.600	0.671	0.662	0.625
	자영자	18.93	12,320.1	0.531	0.515	0.635	0.602	0.584
	기 타	6.36	11,957.2	0.656	0.678	0.738	0.726	0.696
중고령자(50~64세)	근로자	46.8	18,143.3	0.574	0.585	0.633	0.608	0.610
	고용주	6.77	49,077.0	0.517	0.551	0.561	0.514	0.548
	자영자	32.23	24,526.7	0.559	0.568	0.611	0.554	0.593
	기 타	14.2	25,249.6	0.603	0.605	0.659	0.646	0.612
노인(65세 이상)	근로자	14.81	20,466.1	0.615	0.673	0.642	0.603	0.634
	고용주	1.77	112,716.4	0.532	0.774	0.518	0.445	0.535
	자영자	33.08	23,094.9	0.511	0.549	0.556	0.571	0.522
	기 타	50.34	20,593.8	0.721	0.755	0.751	0.723	0.724